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박물관 블로그 기자단 예은입니다.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랑 과제에도 물론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엔 새로운 도전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 일상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집에서만 수업을 듣거나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학교에서 특별 전시회를 하기 때문이에요

강연을 듣고 느낀 점과 학교의 특별전을 공유해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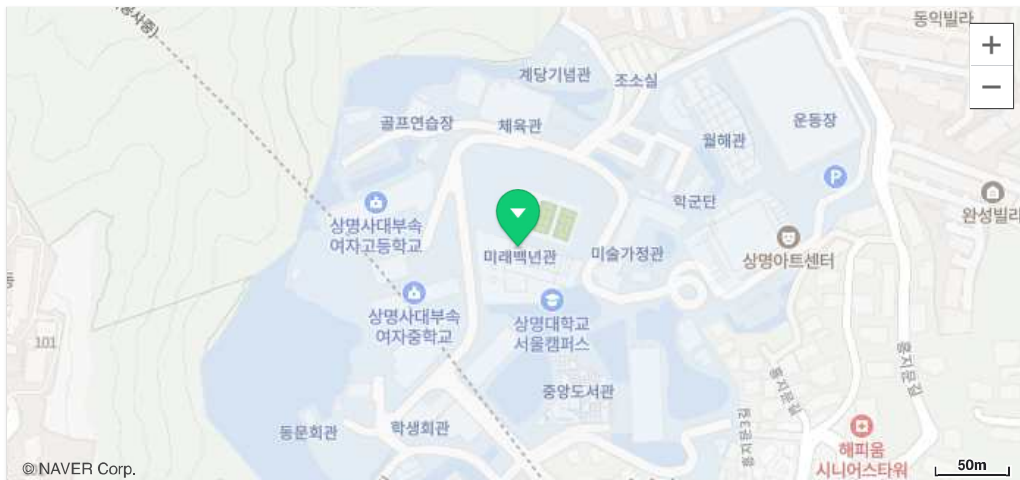
목공예 특별전은 1) 상명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과 2)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기획전시실 두 곳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미래백년관 전시실입니다!

※관람안내

개관일: 화요일~금요일 (월, 토, 일, 공휴일 휴관) / 개관시간: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위치: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20

2020.06.08~11.30 목공예 특별전 진행 중



미래백년관 입구가 두 개인데, 코로나 때문에 4층 출입구는 닫혀있습니다ㅠ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시면 안 되고, 대학본부 쪽으로 가서 언덕을 걸어 올라가셔야 해요OMG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경사가 꽤 힘들더라고요,,,



우리 박물관은 2020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목공예 특별전 <나무, 사람을 품다>를 기획 하였습니다.
온감 소재인 나무가 주는 시각적인 편안함과 전시장을 가득 채운 숲 내음을 느끼며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전시 나무 木 삶에 깃들다

- 기 간 : 2020년 6월 8일(월) ~ 11월 30일(월)
- 장 소 :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기획전시실
상명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 대 상 : 전 국민 (모든 연령가능)
- 관람료 : 무료
- 내 용 : 안식과 휴식을 테마로 안채와 사랑채 목공예 전시
- 셀프체험 : 내 ID 나무 木 호패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기획전시실



상명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체험 똑딱똑딱! 나무 木 공작소

- 기 간 : 2020년 6월 8일(월) ~ 11월 30일(월)
- 요일/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 ~ 12:00 / 14:00 ~ 16:00
- 장 소 : 상명대학교박물관 세미나실
- 대 상 : 초등학생 ~ 성인 (정원 25명 내외)
- 소요시간 : 2시간
- 참가비 : 무료
- 내 용 : 목공예 관련 강의 및 전시 관람,
편백나무 연필꽂이 만들기

강연 나무 木 가구의 조형성

- 일 정

회차	일시	주제
1	10월 5일 (월) 18:30 ~ 20:00	한옥과 전통가구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교수)
2	10월 6일 (화) 18:30 ~ 20:00	목공예의 어제와 오늘 객철인 (상명대학교 미술학부 생활예술전공 교수)

- 장 소 :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 대 상 : 성인 (정원 50명 내외)
- 소요시간 : 90분
- 참가비 : 무료

답사 도심 속 나무 木 향기

- 기 간 : 2020년 6월 8일(월) ~ 11월 30일(월)
- 요일/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00 ~ 17:30
- 장 소 :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기획전시실 →
북촌전통공예체험관 → 북촌한옥마을 →
백인재가옥 → 한국가구박물관 → 상명대학교
- 대 상 : 초등학생 ~ 성인 (정원 25명 내외)
- 소요시간 : 7 ~ 8 시간
- 참가비 : 1만원

■ 관람안내 및 신청방법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기획전시실	상명대학교박물관	프로그램 문의 및 신청방법
• 관람시간 : 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하계방학 _ 10:00 ~ 15:00 점심시간 _ 12:00 ~ 13:00 • 휴관일 : 월요일, 주말, 공휴일	• 관람시간 : 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하계방학 _ 10:00 ~ 15:00 • 휴관일 : 주말, 공휴일	• 신청기간 : 마감 종료 시 까지 • 신청방법 : E-mail, didakf@smu.ac.kr Tel, (02) 781-7923-4 Fax, (02) 781-7929

※ 프로그램 내용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체험 및 답사 참가 일시는 조율 가능합니다.
※ 전시해설은 단체 대상이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운 영 상명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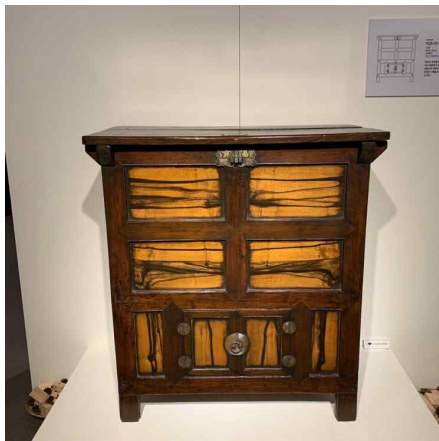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위와 같고, 제가 이번에 참여한 전시와 강연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총

전시_ 나무 木 삶에 깃들다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기획전시실



미백관에서 수업을 많이 들었고, 근로하면서 매일 이 건물에서 학식도 먹었는데
지하에 이런 장소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기회에 처음으로 전시실에 와봤네요,,
(지하 1층 서점에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바로 보여용)



이번 전시회 주제인 '목공예'에 걸맞게 나무로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런지 편안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어요:)





전시실이 크기가 엄청 큰 것은 아닌데도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되게 단조로워 보여도, 그 속에 화려함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꼭 직접 방문하셔서 작품을 음
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거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첫 번째 포스팅에서 소개 드렸던 박물관에도 이와 비슷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좌: 상명대학교박물관 / 우: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왼쪽은 소통과 휴식의 공간, 오른쪽은 따뜻하고 평안한 안식의 공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나무로 만들어 구현한 건데, 다른 느낌이 나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미래백년관 기획전시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마냥 지루하지만
 은 않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도 셀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체험비용은 없구요, 자신만의 나무호패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강연을 들어야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ㅠㅠ
 재로도 제공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전시실 가신 김에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연_ 나무木 가구의 조형성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경영대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밀레니엄관으로 이동했는데요..
 바로 강연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연은 10월 5일과 6일에 있었고, 저는 6일 '목공예의 어제와 오늘' 강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술이나 조형엔 문외한이라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상명대 생활예술전공 교수님의 예술인생과 철학, 작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작가분들도
 소개해 주셔서 지루할 틈 없이 90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ㅎㅎ

나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한 재료인데, 그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
 전시와 강연을 통해서 저도 이날만큼은 한 템포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____@

모두들 안녕영~~



상명대학교 박물관
SANGMYUNG UNIVERSITY MUSEUM

9기 블로그 기자단